

당뇨병 환자 4명 중 1명, 성생활 불가능
발기부전 위험도 비당뇨인의 32배

국내 당뇨병 환자 중 25%가 발기가 전혀 되지 않아 정상적 성생활을 할 수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당뇨학회는 전국 7개 병원에서 선정한 1,312명의 남성 당뇨병 환자와 건강한 비당뇨 대조군 915명의 발기부전 유병률을 면접방식으로 비교 조사한 결과, 당뇨병 환자의 25.8%가 성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완전 발기부전으로, 비당뇨남성(4.6%)에 비해 5.6배 가량 높은 유병률을 보였다고 10일 밝혔다.

의료진은 당뇨남성과 비당뇨남성을 '가벼운 발기부전' '중등증 발기부전' '완전 발기부전' 등 3개 그룹으로 나눠 각기 유병률을 비교했다.

당뇨그룹과 비당뇨 그룹의 평균연령은 각각 55.8세, 47.1세로 평균 7.3년(최단1년, 최장 43년)간 당뇨를 앓고 있는 상태였다.

당뇨병 환자의 65.4%가 발기부전을 호소했는데, 이중 완전 발기부전이 25.8%, 중등증 발기부전이 19.5%, 가벼운 발기부전이 20.3%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비당뇨 그룹은 4.6%만 완전 발기부전으로 진단됐으며, 경증과 중등도 각각 18%, 11.7%에 그쳤다.

완전 발기부전 환자를 연령별로 보면 40~44세 14%(비당뇨 2.1%), 45~49세 15.1%(4.3%), 50~54세 21.4%(5.5%), 55~59 27.5%(2.3%), 60~64세 39.9% (24.1%) 등으로, 55~59세의 경우 당뇨병 환자와 비당뇨인 간 최대 12배 차이를 보였다.

또 당뇨를 오래 앓은 사람일수록 완전 발기부전이 많았는데, 40대의 경우 당뇨기간이 5

년 미만일 때 완전 발기부전이 1%에 불과했지만, 11년 이상 당뇨를 앓은 사람은 12명 중 1명(8.23%) 꼴로 완전 발기부전이였다.

학회는 특히 운동여부와 식생활, 연령, 당뇨병 지속기간 등 당뇨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을 보정할 경우 당뇨병 환자의 완전 발기부전 위험도가 비당뇨 남성보다 3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이주의대 예방의학교실 조남한 교수는 '당뇨병 환자의 발기부전이 예상보다 더욱 심각했다'며 '현재 시판 중인 레비트라 등의 약품을 통해 발기부전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프랑스 전문의들의 조언



당뇨병은 심장과 혈관의 병보다 2배에서 심하게는 4배나 위험하게 발전될 수 있는 병이라고 국제당뇨연합회는 경고한다. 당뇨병을 고혈압과 함께 앓고 있는 사람이 당뇨가 없는 단순한 고혈압 환자보다 반신불수의 중풍이나 사망에 이르는 뇌출혈을 유발할 확률이 2배나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게다가 당뇨

병은 신장기능의 저하를 그 시작으로 하며,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선진국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은 어른들의 실명이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중 다른 것은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닌 절단 수술이다. 프랑스에서는 투석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고 한다.

이 캠페인 협회는 당뇨병과 싸우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 알리고 있다. 그것은 헤모글로빈 A1c와 헤모글로빈이다. 혈액의 당(혈당)은 순식간에 변한다. 혈액의 A1c는 지난 3개월 정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려준다. 결과의 숫자가 높은 것은 혈액 내의 당이 많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뇨병이 안정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3명 중 1

명의 당뇨병 환자들은 당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부족하다고 전문가는 밝힌다.

당뇨병의 합병증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혈중 당 농도를 7% 이내로 낮추어야 한다. 간단히 말하자면 '7'이란 숫자에 민감해야 한다. 3달의 한번 정도, 규칙적으로 검사를 하여 확인하며 이 숫자에 이르게 해야 한다. 만일 결과의 숫자가 8이나 그 이상으로 나왔을 시에는 식이요법이나 다른 건강법을 찾아야 한다.

전염병 수준의 돌발 상황인 당뇨병은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삶이 현대적으로 바뀌어 가면서 늘고 있다. 이는 늘 앉아서만 생활하는 습관, 편식, 과도한 비만이 그 원인이며, 노령화 인구도 한몫하고 있다. >

한달에 한번 반가운 「당뇨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